



로리 매킬로이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 연장전에서 잉글랜드의 저스틴 로즈를 누르고 승리한 후 포효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16전17기... 매킬로이 '커리어 그랜드슬램'

(4대 메이저 제패)

연장서 로즈 꺾고 마스터스 제패  
통산 5번째 메이저 대회서 우승  
명인 열전서 그린재킷 숙원 풀어  
호진·우즈 등 5명과 어깨 나란히

매킬로이, 남자골프 역대 6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선수	1	2	3	4	5	6
진사라젠(미국)	1935	1951-53	1961-74-78	1963-65-66-72-75-86	1997-2001-02-05-19	2025
PGA 챔피언십	1922-23-33	1946-48	1962-72	1963-71-73-75-80	1999-2000-06-07	2012-14
US오픈	1922-32	1948-50-51-53	1965	1962-67-72-80	2000-02-08	2011
디오픈 챔피언십	1932	1953	1959-68-74	1966-70-78	2000-05-06	2014

로리 매킬로이 (북아일랜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여러 차례 좌절을 겪었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그린 재킷'을 입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대업을 이뤘다.

매킬로이는 14일(한국 시각)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4라운드까지 11언더파 277타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동타를 이룬 뒤 1차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으며 정상에 올랐다.

매킬로이의 통산 5번째 메이저 우승이자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에서는 첫 우승이다. 2007년 프로로 데뷔해 최근 15년간 남자 골프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

며 US오픈(2011년), PGA 챔피언십(2012, 2014년), 디오픈(2014년)에선 일찌감치 정상에 올랐던 그는 약 11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추가,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골프 역사에서 마스터스와 US오픈-디오픈-PGA 챔피언십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한 선수는 이전까진 진 사라젠과 벤 호건(이상 미국), 게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뿐이었다.

특히 우즈가 2000년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후 25년 동안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매킬로이가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매킬로이의 그랜드슬램은 독특하게도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마스터스에서 17번째 도전 끝에 극적으로 이뤄진 '테라 서사'는 더욱 풍성했다.

매킬로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 출전했으나 오거스타는 그에게 쉽게 '그린 재킷'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8년 챔피언 조에서 오버파 스코어로 패트릭 리드(미국)에게 우승을 내줬고, 2022년에 마지막 날 8언더파를 몰아쳤으나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2014년 7월 디오픈을 제패한 이후 2015년부터 마스터스에만 오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부담감에 짓눌려야 했고, 그사이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하지 못해 '울렁증'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올해도 첫날엔 타수를 줄이지 못해 20위권으로 출발했고, 2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선 최종 라운드 중에도 디샐보나 로즈에게 단독 선두 자리를 때때로 허용하며 마음을 졸여야 했다.

4라운드 18번 홀(파4)에선 두 번째 샷을 그린 주변 벙커에 빠뜨린 뒤 벙커샷을 홀 1.5m에 올려놓으나 파 퍼트를 놓치며 연장전에 끌려가 이번에도 오거스타와의 악연이 재연될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매킬로이는 같은 홀에서 이어진 로즈와의 1차 연장전에서 두 번째 샷을 완벽하게 관에 붙이며 버디를 낚아 파에 그린 로즈를 따돌렸고 그린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기쁨의 오열을 쏟아내며 눈물의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 양키스전 연타석 홈런포 팀 5점 중 4타점 '원맨쇼'

이정후 4회 솔로·6회 스리런... SF 5대4 승리 앞장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외야수 이정후(26·사진)가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는 14일(한국 시각)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양키스와 원정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4회와 6회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팀의 5득점 가운데 혼자 4타점을 올려 팀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특히 이정후는 지난해 미국 진출 후 처음 방문한 양키스 타디움 3연전에서 홈런 3개를 포함해 9타수 4안타에 홈런 3개, 7타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경기가 끝난 뒤 MLB 인턴십 홈페이지는 이 경기의 최우수선수(MVP) 격인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에 이정후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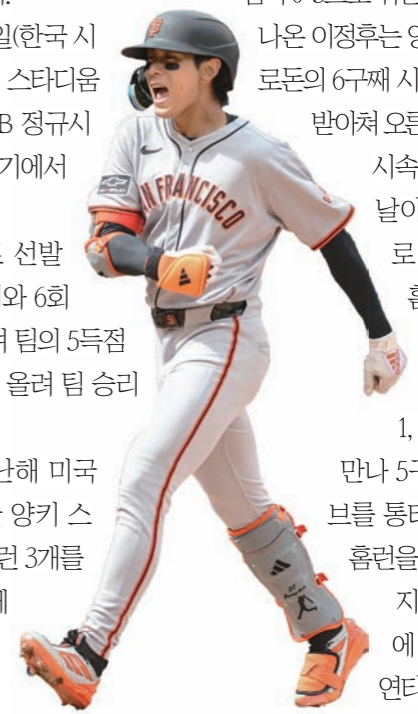
이정후는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중견수 직선타로 몰러났으나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시즌 2호 홈런을 터뜨렸다.

팀이 0-3으로 뒤진 4회 1사 주자 없을 때 나온 이정후는 양키스 선발 카를로스 로돈의 6구째 시속 138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시속 166.2km로 123.7m나 날아간 타구였다. 1-3으로 따라붙은 6회 역전 홈런의 주인공도 이정후였다.

이정후는 6회 1사 1, 2루에서 다시 로돈을 만나 5구째 시속 131.5km 커브를 통타, 우월 역전 스리런 홈런을 작렬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이정후의 첫 연타석 홈런, 한 경기 2개 홈런이다. 또 지난 시즌 16승을 거둔 리그 정상급 좌완 로돈이 한 경기에서 왼손 타자에게 홈런 2개를 맞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 배구 여제 은퇴식 10월... 다음 시즌 홈 개막전 유력

2024-2025시즌 통합우승을 달성한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팀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배구 여제' 김연경(37)의 은퇴식 개최를 추진 중이다.

14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이번 시즌 중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의 은퇴식을 10월 개막하는 2025-2026시즌 홈경기 때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연경은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KYK 인비테이셔널 2025' 이벤트 경기를 여는 가운데 은퇴를 알리는 고별 행사를 준비 중이다.

흥국생명은 이와 별도로 한국 여자 배구 최고의 활약을 펼친 '레전드' 김연경의 구단 자체 은퇴식을 마련한다. 은퇴식 은 차기 시즌 홈 개막전인 10월 18일 오후



흥국생명 김연경이 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5차전 경기에서 승리하며 통합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4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정관장과 경기가 유력하다. 김연경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정관장과 명승부를 치러 흥국생명의 통합 우승을 이끌고 챔피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